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사회와 ‘불교의 부재’*

최 대 희 (대구가톨릭대학교)
(ppiraten@naver.com)



국문 요약

초기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관찰된 ‘불교의 부재’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설명된다. 우선 기독교는 모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한인들에게 ‘한국인’임을 느끼게 한 민족주의적 종교였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불교는 일본인의 민족종교로 인식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인의 기독교 수용은 새로운 이민지에서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수용하고 미국인들의 우호적인 관심을 끄는데 일조했다.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은 농촌 출신의 일본 이민자들과는 달리 대체로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던 젊은 피난민들로 정착민으로서 의식이 강하게 작동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미국은 앞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대대가 살아가야 할 생활 근거지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화’는 ‘기독교화’로 읽혀졌다. 본 연구는 하와이 한인 이민사회에서 ‘불교의 부재’는 그들이 낯선 하와이 땅에서 반일 민족주의자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고 아울러 미국에 정주하려는 정착민으로서의 의식이 낳은 결과임을 강조한다. 본 연구가 주목한 도진호는 불교 포교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했음에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4268)

불교포교사로서의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에 팽배해 있던 기독교 중심의 종교적 민족주의에서 그의 개종이 진행된 근본적 배경을 찾았다.

주제어 : 하와이 한인이민사회, 불교, 종교적 민족주의, 미국화, 기독교화

I. 들어가며

이민용은 내티어(Jan Nattier)에 기대어 미국 불교를 다음 3가지 유형, 첫째 수입불교(Import Buddhist), 둘째 수출불교(Export Buddhist), 셋째 수하물불교(Baggage Buddhist)로 구분했다(이민용 2002, 130-134). ‘수입불교’는 일종의 ‘엘리트’ 불교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의 중상류층 지식인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받아들인(imported) 불교라는 특징을 띤다. 이들 지식인 불교인은 보다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선 센터를 설립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스승을 직접 초빙해 오기도 한다. 이에 반해 ‘수출불교’는 불교 교단의 포교 운동에 의해 전수되는 불교로서 일종의 복음주의적 불교로 분류된다. 불교 교단이 포교를 위한 실제적인 물질적 보조를 제공(export)하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다. 일본의 창가학회는 동양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히스패닉 등에게 불교 전파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수출불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 불교는 이미 자국민의 이민 초기 단계부터 승려를 파견함으로써 자국민의 ‘수하물불교’를 발전시키고자 애썼다. 이민자들이 이민을 올 때, 모국에서 자신들의 생활과 관습 그리고 종교적 믿음을 자신들이 가져오는 보따리(baggage)에 담아오는데, 이러한 불교를 ‘수하물불교’라 일컫는다. 일본 불교의 여러 교단들은 적극적인 승려 파견을 통해 자국민이 낯선 종교와 가치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혼란을 잠재우고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카시와하라 2008, 96-99). 일본 불교는 이와 같이 이민자들의 수하물불교에 접목되어 이민1세를 비롯한 초기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하와이에서 불교가 일본의 민족종교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사회는 일본 이민사회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기 한인 이민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은 하와이 초기 한인과 기독교의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일본인과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특징이라고 입을 모은다(패터

슨 2002, 165). 같은 동양계인 일본인은 모국에서 ‘이민 보따리’ 속에 담아온 불교를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종교로 유지한 반면, 1903년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이민자의 보따리 속에는 마치 불교는 아예 들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초기 한인 이민사회에서 묵도되는 ‘불교의 부재’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의 부재’는 당시 초기 한인 이민자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다수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실제 당시를 관찰한 기록에 따르면 초기 한인 이민자들 모두가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고, 불교 신자를 비롯한 여러 종교의 신자들이 섞여 있었다. 심지어 1903년부터 1905년 사이 하와이로 입국한 초기 한인 이민자들 중에는 몇몇 불교 승려가 섞여 있었다는 관찰도 제시된 바 있다(Kim 1937, 86). 그럼에도 초기 한인사회에 대한 기록들에서 불교 신자의 종교적 및 사회적 활동에 관한 서술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몇몇의 승려 또는 다수의 불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의 한인 이민자들과 함께 하와이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취는 이내 사라졌고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을 제외한 무종교인들과 불교신도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기독교 신자가 아닌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보따리 속에 담겨져 함께 유입된 전통 종교 또는 불교는 왜 꽃을 피우지 못했을까?

본 연구는 초기 한인 이민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불교 부재’의 원인에 대한 탐색을 초기 하와이 한인 사회의 특성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기 한인 불교 신자 또는 승려들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이민보따리 속에 담아온 불교가 꽃 피우지 못한 원인 또는 그들의 종교 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킨 배경을 유추해보는 유일한 방식은 그들이 생활했던 한인 초기 이민사회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이때 본 연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인물은 1920년대 일제 강점 하 조선에서 청년불교개혁운동가로 알려진 승려 출신 민족운동가 도진호이다. 쌍계사 출신인 그는 일본에 유학하여 미학을 전공하였고, 귀국 후 김태흡 등과 함께 불교사 기자로 일하였다(김종진 2016, 44). 1930년 하와이에서 일본 불교가 주최한 범태평양불교 대회에 참석한 것을 인연으로 1년 뒤 하와이로 포교를 목적으로 입국한 최초의 한국 승려이다.¹⁾ 입국할 당시 그의 신분은 승려였으나, 그는 결국 개종하고 기독교 선교사인 현순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다. 1940년대의 그는 더 이상 승려가 아닌 민족주의자로서의 정체성만을 보여주었고, 해방 직후 재미한족연합위원회대표로서 다시 현대사 앞에

1) 도진호의 간단한 이력, 범태평양불교대회에서의 활약 그리고 하와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원 스님의 “미주 한국불교의 역사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이라는 방대한 논문에서 특히 3장과 5장을 참조하길 바란다.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불교의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젊은 승려였던 도진호는 포교를 목적으로 하와이로 이민했지만²⁾,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애초의 목표를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기독교인 아내를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그의 개종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작용한 당시 하와이 한인 사회의 친기독교적 또는 반불교적 분위기에 주목함으로써, 당시 초기 한인 이민사회에서 관찰된 ‘불교 부재’ 현상의 배경을 탐색하고자 한다.³⁾

Ⅱ. 한인의 기독교로의 개종과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의 특성

1. 하와이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한인의 기독교 개종

1903년에 시작된 하와이로의 1차 한인이민은 1905년 말에 이르면 일단 종결된다. 이들 한인은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대략 400여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발간된 한 기독교 신문에 따르면, 1903년부터 1918년 사이 기독교로 개종한 한인이 2800명으로 추정된다(Yu 2011, 9). 1920년 하와이 거주 한인 인구가 대략 5천명으로 조사(Lind 1980, 34 표3)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채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기독교로 개종한 한인 인구가 2800명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현상이다. 하와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을 연구한 다수의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인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압도적인 우세를 지적한다. 김원용은 초기 한인 이민자의 대부분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한인들 중 불교신자의 수는 무시할 만 했다고 평가한다(김원용 2004, 29). 데이비드 유 역시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하와이 거주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기독교인”이었다고 평가한다(Yoo 2006, 107). 초기 한인 이민자를 연구한 웨인 페터슨 역시 제2차세계대전 전 당시 하와이에 살고 있던 한인들의 압도적인 수는 기독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
- 2) 도진호가 포교를 목적으로 도미하였다는 것은 그가 당시 청년불교인들의 잡지로 인식되던 금강저와 서신 교환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도진호 師는 去8월21일 敬성발 미국 布哇하와이 - 필재로 갔다는데 師는 彼地에 朝鮮文庫를 세우고 불교포교사업을 일으키겠다고” (금강저 19, 1931. 11).
- 3) 물론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주목하지 않지만, 하와이 초기 한인사회에서 승려로 알려진 또 다른 주요 인물로는 채용하(Chai Yong Ha)가 존재한다. 채용하는 1940년대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한국 전통 무용가로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Van Zile, 2002). 그러나 그가 1940년대 송무를 비롯하여 한국 전통 무용을 전수하기 전까지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가 불교 포교를 위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하와이에는 약 천명의 감리교인, 약 천명의 기독교인들(감리교의 일파로 이승만과 연계된), 그리고 약 200명의 성공회 신자들, 약 200명의 제칠일 안식교인들 그리고 100-300명에 달하는 천주교인들이 존재했다. 오직 30명 정도만의 불교신자들이 알려져 있었으며 약 20명은 동학이나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다(패터슨 2003, 121).

하와이 초기 한인사회의 이와 같은 식의 종교 분포는 한인보다 앞서 하와이로 이주한 중국인 또는 일본인과는 다르게 한인들을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1931년 8월 하와이에 당도한 도진호는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기독교로 치우친 한인사회를 마주했을 것이며 이것은 당시 한인들 대상 불교 포교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1907년 감리교 감리사 워드만은 다른 민족사회들과 달리 초기 한인사회의 친기독교적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하와이로 온 모든 이민들 가운데 한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민감한 민족이다. 다른 동양인들은 그들의 재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며, 따라서 그들의 사제들이 뒤를 따라 입국하여 불당이나 신사들을 세운다.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이 무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 이민들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은 재래 종교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유동식 2006, 38-39).

그렇다면 워드만이 관찰한 바와 같이 다수의 한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무엇보다 이민과정과 이민정착 과정에서 선교사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을 싣고 하와이로 오는 이민선 내에서 이미 개종의 노력이 전개되었다. 인천을 출발하여 하와이에 도착한 첫 이민선에 몸을 실은 한인 이민자들의 절대 다수는 기독교인이었다.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1차 이민단 102명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1명은 인천 내리 교회 출신 감리교 신도였고, 20여 명의 노동자도 내리교회의 영향에 있던 자들이었다. 그것은 이 첫 이민자들이 내리교회 목사 존스의 설득으로 이민을 감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첫 한인이민자들을 인솔한 자들 역시 이 교회 소속이었다. 그런데 이 첫 이민자들은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감리교인의 수는 58명으로 늘어 있었다(Yu 2011, 3). 그것은 이민자들을 태우고 하와이로 향하고 있던 배에서 이미 선교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첫 이민선을 타고 온 한 한인의 증언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들은 갤럭시호의 어두컴컴한 3등 선실에 타고 있었다. 그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지의 낯선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들의 심리상태는 매우 불안했다. 이때 선실 한 구석에서 열렬한 종교적 예배가 거행되었다. 그러자 한인 이민자는 모두 기독교인이 되어 예배를 함께

올랐다(Choy 1979, 97). 이러한 의례의 끝에 이민자 중 몇몇이 선상에서 개종을 했다. 이 개종자들은 아마도 앞에 언급된 20명의 노동자들 중에서 나왔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미 한국에서 내리교회와 선교사들과 연계를 맺고 있던 자들이었다. 당시 한국의 교회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했는데, 그러한 교회 시설에 머물면서 하와이 이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이들이 이민선에 올랐던 것이다.

물론 이민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민선을 타는 교회신자의 수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민정착 과정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이 행한 역할을 보면, 초기 한인이민자들의 많은 수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이민선에 통역사로 고용되었던 한국인 선교사들은 그들이 태평양을 건널 때 그리고 하와이 이주 초기 정착 과정에서 그들의 곁에 있었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다. 한인들은 선교사들을 통하지 않고는 백인과 접촉할 수 없었다. 선교사들만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었다. 한인 증언자에 따르면, “한인들을 하와이로 실어 나르는 이민자 배에는 적어도 한 명의 목사가 타고 있어 자포자기한 이민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민자들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을 때, 어김없이 선교사들이 마중을 나왔다. 한국의 선교사들은 하와이 선교사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한국선교사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하와이 선교사들은 한인들이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딜 때, 항구에서 직접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하와이 정착을 도왔다(Yu 2011, 7).

하와이 이민 초기 한인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한 데에는 당시 한인교회가 수행한 특별한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한인교회는 신앙생활을 위한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한인 대상 교육 및 문화운동 그리고 민족운동의 중심지였다. 교회는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외부와 단절된 한인들이 인간적인 교류를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다. 또한 교회는 한인들의 교육 및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교회는 한글을 가르치는 민족학교를 설립하여 한글과 우리문화를 가르쳤다(유동식 2006, 40). 그런데 한인교회가 수행한 이러한 역할은 다른 민족의 이민사에서도 나타나는, 종교가 이주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이민사회와 일본 이민사회를 구별 짓는 뚜렷한 특징이 대두된다.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 이민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통 종교인 불교가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매개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한국 이민자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불교가 아닌 기독교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하와이의 기독교회가 한인의 민족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하와이 한인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민족운동이 한인교회와 긴밀한 연계 하에 조직 및 운영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를 관찰한 버니스 김(Bernice Kim)에 따르면, 미주 초기 한인사회는 크게 보아 감리교회 신자로 구성된 다수파와 다른 교회 또는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소수파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버니스 김은 연이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관찰을 제시한다. “독립의 문제가 한인들의 가슴에 너무나 사무쳐 있었기 때문에, 여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다수의 한인들조차 감리교회 또는 한인기독교회에 가입하였다 (Kim 1937, 146).” 우리는 이 인용문을 통해 한인들이 신앙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족 차원에서 한인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기 미주 한인의 종교적 민족주의의 일단을 드러낸다. 한인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종교가 아니라, 민족독립운동을 위한 민족종교로 탈바꿈되었던 것이다. 물론 한국 내에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였다는 점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하와이에서 이와 같은 식으로 민족종교로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각인된 데에는 하와이 농장주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일조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1903년에 시작된 한인 이민은 1905년이 끝날 때 쯤 7천여 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일본인은 한인 이민자 수의 2배 이상인 18,027명이 여전히 하와이로 이민해 왔다(Kim 1937, 85). 당시 일본노동자는 하와이 전체 노동자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큰 틀에서 봤을 때, 당시 하와이 농장주들과 주정부가 새로운 이민자로서 한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더 이상 일본 노동자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기보다 한인 또는 그 밖의 다른 민족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와이에서 일본인들이 점하고 있던 우세한 지위와 그들 사이의 연대를 분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하와이로 이민 온 초기 한인들의 이주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행한 이들은 하와이 농장주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다(패터슨 2003, 102-111). 일본 이민자의 경우, 일본 불교가 파견한 불교 포교사들이 자국민들에게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 정착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복지적 재원을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주과정에서 오는 여러 정신적 문화적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한인 이민자의 경우 조선에서 파견된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들 농장주들은 의식적으로 한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불교적인 일본 이민자사회와 친기독교적 한인사회라는 식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으며 한인과 일본인 사이의 대립관계를 토대로 수월한 농장경영을 도모했다. 하와이 농장주의 노력은 한인들의 반일적 민족의식과 결합하여 하와이 이민 초기 한인사회에서 기독교가 일제의 지배하에 있는 한국과 한국민족을 구원하는 한인의 민족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비례하여 하와이 한인들 사이에서 불교는 기독교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인의 종교로 인식되게 되었고 뿌리를 내리기 어렵게 되었다.

Ⅲ. ‘뿌리 뽑힌 피난민’으로서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자

하와이 이주 초기 한인들 사이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으로 무엇보다 초기 한인들의 다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농부가 아니라 농촌으로부터 뿌리가 뽑혀 도시로 밀려난 일종의 피난민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초기 한인사회를 연구한 버니스 김에 따르면, 농촌에 위치한 동향 출신으로 구성된 중국인 또는 일본인과 달리 농부는 전체 한인 이민자의 1/7이 안 되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집단은 항구나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던 노동자와 날품팔이(콜리)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직 군인과 하급 정부 관료, 수공업자, 정치적 망명자와 학생, 경찰관, 광부, 벌목공, 하인 그리고 몇 명의 불교 승려가 있었다. 거의 모두가 도시 거주자였다(Kim 1937, 86).

페터슨 역시 한인 이민자의 이러한 특성을 지적한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동학혁명, 중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1894년에서 1905년 한국의 대 격변의 시기에 정부에 의한 강압적인 세금 징수,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한 도적질과 질병의 횡행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상당수의 농민들이 수백 년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직업도 없이 도시로 몰려”든, 그리하여 이들은 “이미 고국에서도 뿌리가 뽑힌 피난민”이었다(페터슨 2002, 163). 이러한 특성을 가진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자마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보다 근대화된 젊은 기독교인들은 이미 서양식으로 ‘상투’를 잘랐다. 그리고 몇몇은 한국식 복장을 버리고 외국식 의상을 입었다. 다른 몇 명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상투를 자르고 그곳의 이민당국으로부터 미국식 의상을 한 벌씩 얻어 입었다. 비록 상당한 수의 한인들이 토착 의상을 입은 채 하와이에 도착했을지라도 백 명 중 2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긴 머리카락을 자른 상태였다(Kim 1937, 86).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특성은 더 이상 물리설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그리하여 모험심과 친취성이 강한 특성을 드러냈다. 이들이 한국 농촌사회에서 전통 종교로 여겨지던 불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민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동경이다. 하와이로 향한 한인 이민자들 역시 그러한 동경을 품었다. 구한말 농촌에서 뿌리 뽑혀 도시 빈민 생활을 하던 한인 이민자들의 눈에 비친 선교사들의 생활방식은 그들이 꿈꾸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제공했다. 선교사들의 풍요로운 삶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한 자들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이 수반하는 실용적인 가치였다. 그들은 기독교로의 개종에 기반하여 낯선 땅에서 물질적으로 윤택한 삶을 꿈꾸었다. 요컨대 그들이 가슴에 품은 서구적 삶에 대한 동경은 그들로 하여금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하게끔 추동한 원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한 이유가 되었다. 한 한인의 다음과 같은 회고는 개종의 전형적인 이유를 보여준다.

(...) 많은 한국인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하나의 희망이고 삶이었다. (...) 어떤 것은 선교사들이 말해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발전된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곧 미국은 한국의 희망이 되었다. (...) 마음 약하고 핍박받아온 한국 노동자들이 이러한 평화와 풍요의 안식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패터슨 2002, 170)?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도시에서 생활하던 20대-30대의 젊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조은정 2011, 98 표30 참조). 농촌으로부터 뿌리 뽑힌 채 도시에서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생활하던 20-30대 젊은 남성들이었다. 이들에게 미국으로의 이민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조금은 험난한 도정이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해주는 희망의 메시지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게다가 하와이 한인들은 임시체류자가 아닌 정착민 의식을 가졌다. 그것은 고국으로 귀환한 사람의 수가 일본인과 중국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인은 반 수 이상이 귀국했으며 (4만 6천명 가운데 2만 3천 명이 귀국), 반수 이상의 일본인들이 귀국(18만 명 중 9만 8천명)했다. 한인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민자의 20%만이 귀국했다(이영호 2004, 15).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은 되돌아갈 고국이 존재했다면, 한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은 1905년 일본의 보호령이 되었고 1910년에는 강제 병합되었다. 중국인과 일본인에게와는 귀국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성공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한인들은 하와이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신의 미래가 출생지 고국에 있다는 일시 체류자들과 달리 한인들은 정착민으로서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미래를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정착민이었던 것이다.

정착민으로서 한인 이민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사회에 적합한 삶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였다. 이선주는 하와이 초기 한인들에 대한 구술 연구를 토대로 당시 한인들에게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의존감’이 남달리 부각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하와이 한인은 완전히 낯선 땅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의사소통도 하지 못한 채 사탕수수 농장에 갇혀 살게 된 한인들이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을 구하는

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였다는 것을 뜻한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조차 힘들었고 매우 취약한 법적 신분에 놓여 있었다. 일본인과 달리 보다 강한 정착민 의식을 가졌던 이들 초기 한인들에게 한인교회는 믿고 의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공동체(A Knowable Community)’를 넓힐 수 있는 좋은 발판이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 이러한 의존감을 해소하고 낯선 정착지에서의 삶의 방식을 익히고 사탕수수 농장 밖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농장을 벗어나 도시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연을 만들었다(이선주 2013, 52-55). 이민자에게 정착민 의식이 전면에 대두되면, 고국의 가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종교는 빛을 바래기 마련이다. 중국인이 지속적으로 유교와 도교에, 일본인이 불교와 신도에 매달렸던 것과 달리, 한인들은 하와이에서의 정착 생활을 통해 기독교 신자가 되어갔다. 이미 1905년 하와이에 도착한 존스 목사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남겼다.

한인들은 잘 살고 있다. 한인들은 양복을 입고 있고, 양식을 먹으며 서양 사람같이 행동하고 있다(패터슨 2003, 64).

패터슨은 하와이 초기 한인을 연구한 자신의 저서에서 존슨 목사 외에도 한인이 하와이 문화에 일찍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하와이 한인의 영어 실력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인 이민 1세와 2세는 일본인이나 중국인에 비해 높은 평등사상과 자유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생활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대부분 같은 지역의 농촌 출신으로 구성된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이민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드러냈다. 일본 이민사회에서는 언젠가 일본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과 더불어 일본 문화와 종교가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발산하고 있었다면, 이제 되돌아갈 고국이 사라진 한인들에게 서양의 문화와 종교는 새로운 정착지의 삶의 조건이었다. 한인들은 보다 평등한 세상을 약속하는 기독교를 수용함으로써 유교를 거부하고 한국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믿었다. 뿌리 뽑힌 이민자로서 초기 한인 이민자들에게 ‘기독교화’는 곧바로 ‘미국화’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었다.

1931년 8월 미국에 도착한 도진호가 마주한 한인들은 바로 이러한 동기로 미국으로 이민을 감행한 사람들이었다. 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모국으로 귀환한 자들은 아마도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미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어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0-30대에 하와이로 이민을 감행한 매우 모험적이었던 한인들 중 귀국하지 않았던 이들은 도진호가 하와이에 도착한 1931년에는 나이가 50세에서 60세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들 부모세대들은 10대에서 20대에 이른 자식세대들과 함께 바로 1930년대 하와이 한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세대들 못지않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불교

포교 활동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무엇보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미국주의(Americanism)’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한인2세의 등장이 뚜렷한 현상으로 관찰되었다. 이들은 강인한 개척정신과 민족의식을 가진 초기 이민자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이 이민2세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부모들의 그것과 사뭇 달라 부모세대와 많은 갈등을 보였다. 한인1세대는 한국식 생활방식과 한국어를 강요했지만, 젊은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부모님들의 가부장적인 훈계적인 교육방식과 생활방식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형국이었다. 이들은 부모의 권유로 한글을 가르치는 민족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떠나자마자 그들은 한글 교육을 받으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글을 배워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같은 또래의 중국인과 일본인은 자국의 언어를 배우는데 경제적 동인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집단 사이에서 사업을 기획할 수도 있었다. 민족집단의 규모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한인들은 그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의 소수자 집단이었고 민족집단 안에서의 경제적 활동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인은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일정 정도 성공하면 모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인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 막혀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로 귀환하는 것보다 차라리 낯선 미국 땅에서 정착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되었다. 실제로 1920년대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자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한인 사회가 처한 그러한 배경 하에서 젊은 세대는 이른바 ‘미국주의’에 경도되었다. 어린 시절 학습한 한국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망각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오로지 영어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대를 관찰한 기록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1931년 하와이에는 10개의 국어를 가르치는 민족학교가 존재했다. 그러나 민족학교는 한국어를 보존하려는 부모의 열망에 의해 유지되었다. 학교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정도를 가르치는데 국한했고, 학생들은 마지못해 참석했다. 따라서 민족학교가 젊은 한인의 미국주의 경도를 저지할 만큼 위협적이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교육받는 미국적 이념과 이상이 민족학교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수되는 낡은 한국적 이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무렵 미국주의는 완벽하게 대세를 장악했다(Kim 1937, 196-197).

도진호가 1931년 하와이에 도착한 후 교사로서 일했던 학교가 바로 기독교계열의 민족학교였다. 그가 한국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던 한인 학생들은 바로 이러한 ‘미국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한인2세들이었다. 한글조차도 경시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신세대들에게 불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감히 꿈도 꾸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가 한국의 역사를 가르칠 때, 불교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었는데, 그러한 교육 행위로 인해 불교를 전파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의 교육적 활동의 폭은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모세대들 중 극히 일부가 불교를 신봉하는 자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들 자식세대들은 미국이라는 기독교사회에서 기독교적 문화에 흡입되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부모들 세대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가 우세했던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드러내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인들에게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때 다수의 한인 후세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기독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지속적인 개종 노력이 전개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하와이 초기 한인이민자의 기독교와 ‘불교의 부재’

1. ‘기독교화=미국화’ 논리와 ‘불교의 부재’

하와이 초기 한인의 불교 활동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한인의 민족종교가 기독교로 인식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초기 한인사회와 불교의 관계를 거꾸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장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다수의 무종교파 또는 불교 신도들은 이민 과정에서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기독교 신도로 개종했다. 그들의 개종에는 기독교회와 선교사들의 노력이 주효했다. 나아가 한인이민자의 특성이 기독교로의 개종을 손쉽게 했다. 이민자는 주로 모험심 많은 젊은이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서 뿌리가 뽑혀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이들이 전통과 연관된 불교와 결별하고 근대화와 연관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 및 중국 이민자들은 대개 같은 농촌의 동향 출신으로 대부분 농부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귀국의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었다. 그들이 하와이에서 같은 지역에 일종의 섬을 형성하면서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한인들의 삶의 조건은 이와는 아주 달랐다. 한인들은 도시 지역으로 나와 하와이의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분투했다. 따라서 한인들의 삶의 지향과 일본인의 삶의 지향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여기에 일본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 개교사를 파견하여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종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 불교의 하와이 포교는 1887년에 시작되었다. 카가히 소루는 교단이 파견한 승려가 아니었지만, 그는 개인 자격으로 호놀룰루로 이주하여 포교활동을 개시했다. 정토진종 본원사파가 정식으로 포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1897년, 미야모토 예준을 특파원으로 파견하면서였다. 정토진종 대곡파는 1899년 개교사 사자나미 시즈카를 파견하여 카우아이

섬에 포교소를 설치하였다(카시와하라 2008, 96-99). 18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도 사이의 시기는 중국인의 미국 이민이 막히기 시작한 시점으로 일본인의 미국 이주가 크게 증가하던 때였다. 이에 일본 불교는 미국 이민자를 위해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느꼈다. 교단 차원의 포교의 목적은 무엇보다 자국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일본 불교 교단은 미국으로 이주한 자국민에게 기독교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민과 정착이라는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교활동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1900년대 들어서서도 일본의 다양한 불교 교단에 의해 자국민을 위한 포교 활동이 이어졌다(윤기엽 2009, 419-423).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 하와이에서 불교 신도들을 불교조직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조직적인 포교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한국 불교 종파의 노력은 전무 했다. 도진호가 1931년 불교 포교를 목적으로 하와이로 입국했지만, 그의 입국은 개인적 결단의 결과였다.

이만열은 미국이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논하면서, 해방 전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 중 87.6%를 차지한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는 다분히 백인우월주의를 기독교 문화전파와 결합시키고 거기에서 아메리카주의에 의한 대외확장(침략)정책을 ‘기독교화=미국화’라고 논리화시키면서 출발 진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이만열 1988, 166). 한국 개신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정치적 문화적 영향 하에서 미국적 가치체계나 문화를 수용하고 모방함으로써 ‘기독교화=미국화’라는 정식을 실제로 관철시켰다(이진구 2007, 5). 하와이 초기 한인이민자들이 미국 선교사 및 그들의 영향 하에 있던 한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용한 기독교 역시 ‘미국화’의 다른 이름이었다. ‘기독교화=미국화’ 논리는 한인 이민자들로 하여금 미국으로 향하게 하는 추동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와이 현지에서 적응과정을 추동한 동력이었다. 그들에게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미국의 가치관과 문물 그리고 풍습을 수용하고, 정착지로서 미국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미국 현지인들 역시 한인들의 기독교화를 그렇게 바라봤다. 그들은 자금과 지원정책을 통해 한인선교사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한인들의 기독교화를 미국을 수용하는 바로미터로 해석했다.

친기독교적인 한인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인은 비난되었다. 미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불관용적이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종교와 관련이 있다. 비록 하와이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인들은 미국에서 ‘작은 일본’을 만들어 자신들이 고향으로부터 가져온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고자 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캘리포니아 플레이서 카운티(Placer County)에서 일본인들은 해변가를 따라

‘작은 일본’을 구축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곳에서 일본인은 그곳의 땅을 자신들의 관리 하에 두고 모국의 이념, 관습, 종교 및 그들의 애국심을 그대로 보존하고 살았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일본인의 민족주의를 경계하면서 이에 대해 불관용의 태도를 보였다(Cox 2011, 178). 하와이에서 전개된 ‘미국화’ 캠페인은 타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미국의 불관용 태도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무엇보다 일본 이민자들을 겨냥했다. 이 캠페인은 동양인의 이민자 문화의 흔적, 특히 불교를 뿌리 뽑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Choi 2004, 143). 무엇보다 하와이에서 주류사회의 기독교인에 의해 ‘타자’의 종교로 간주된 것은 불교였기 때문이다. 불교 신자들은 미국인에 의해 ‘동화될 수 없는 자’로 여겨졌다. 그 결과 하와이의 일본 불교는 살아남기 위해 기독교회의 관행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기독교를 모델로 한 일종의 동화 과정이었다. 일본에서 불교 사원은 승려가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사원은 기독교의 장로 제도와 흡사한 조직 형식을 취했다. 전형적인 일본 불교 사원의 외관을 피하기 위해 사원의 외관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다. 내부 시설 역시 변형되었는데, 불공을 드리는 공간에 마치 기독교의 예배당에서 볼 수 있는 의자와 강연대가 놓여졌다. 주말 불공의 순서와 방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하와이 불교 사원에서 행해진 전형적인 불공 형식은 먼저 명상을 하고, 불경을 낭송하고 그 뒤에 설법을 듣고, 찬불가를 부르고, 향을 피우는 것이었다(Ama 2007, 24).

2) 민족운동에서 기독교의 구심 역할과 ‘불교의 부재’

널리 알려져 있듯이 19세기 말 조선에서 기독교는 해방의 종교로 인식되었다. 기독교가 신분과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 유교에 기반 한 낡은 사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자들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 나아가 1910년대 일본의 조선 강점 이후 기독교는 반일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조선의 민족운동의 산실이자 본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널리 인정된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 중 상당수는 민족문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호응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는 조선에서와는 달리 민족운동과 기독교의 간극이 벌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교회는 한인공동체의 중심이었으며, 한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다(박규환 2013, 251-252).

하와이 한인들에게 민족의 독립은 지상과제로서 자신과 고국을 연결시켜주는 핵심 의제였다. 또한 민족 독립이라는 과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미국 영토 속 하와이에서의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었다. 20세기 초반 한국에서 기독교의 성장은 매우 눈에 띄는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그것은 두 가지 사안과 관련이 있다. 첫째, 구한말 일본제국주의

시기 일반인의 눈에 비춰진 불교는 유교와 더불어 보수적 삶의 태도와 연관되었다면, 기독교는 근대와 등치되었다. 둘째, 기독교는 기성체제의 등에 업혀 존재하는 불교와 달리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운동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졌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는 일본에 대항하는 반대세력으로 비춰졌다(백낙준 1995, 430-432). 이러한 의식은 하와이 이민자들에게도 그대로 유지 및 전수되었다. 그런데 초기 한인 이민사회에서 기독교 측과는 달리 민족 독립을 위한 불교 측의 노력은 찾기 어렵다.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1904년 신조신문의 창간을 통해 불교 쪽의 민족운동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존재했다는 사실 뿐이다. 김원용에 따르면, 신조신문은 하와이 이민 초기 최초의 정치적 조직인 신민회가 조직되었는데, 이 조직의 결성 직후 창간되었다고 한다. 그때 불교신자들을 위시한 일부 구성원들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감리교회의 독단적인 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직으로부터 독립해 나가 창간한 신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이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런데 현재 신문이 남아 있지 않아⁴⁾ 불교신도들의 활동상황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 만약 이 신문과 연계된 조직이 계속 살아남아 있었다면 도진호가 1931년 도미했을 당시 불교 진영의 민족운동을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하와이 한인사회는 ‘망명자 공동체’이자 ‘이민자 공동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었다. 망명자 공동체로서 한인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적 독립 운동의 통합적 구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민자 공동체로서 한인사회는 다른 한편으로 정착민로서의 의식을 장려했다. 한인은 정착민으로서 기독교를 통해 미국을 수용했다. 미국은 자신의 꿈을 실천하고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희망의 터전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한인의 의식을 깊숙이 각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제국주의에 협조적인 일본인들과의 대립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한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극도의 반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하와이에서 한인들의 반일감정은 시시때때로 분출되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직후인 1912년 10월 5일 일본계 신문인 하와이 타임즈지(Hawaii Times)에 일본 영사가 한인 구제금조로 750불을 감리교 감리사인 워드만에게 주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러자 한인사회가 술렁이었고, 격렬한 항의가 전개되었다. 워드만은 이 돈이 구제금이 아니라 한인 기숙학교의 보조금으로 받은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한인들은 일본영사의 돈을 받아가며 자식을 교육시킬 수 없다며 학생들을 동맹퇴학 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유동식 2006, 106).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미 과거에도 발생했었다. 1911년 9월 하와이섬 힐로에서

4) 김원용에 따르면, 하와이 한인 신문 제1호인 신조신문은 1904년 3월 27일부터 한 달에 두 번씩 호놀룰루 거주 최윤백의 등사기로 찍어내다가 이듬해 4월 폐간되었다. 이덕희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신조신문은 없다(이덕희 2003, 196-197). 사장은 최윤백, 주필은 김익성, 번역은 최영만이 담당했다. 국문으로 발행되었다(車培根 1980, 60-61).

교회당을 지을 때, 일인으로부터 미화 200불을 받은 일로 홍한식, 박세환 목사가 국민회로부터 공권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호놀룰루 YWCA에서 일하는 어느 한인 여성 사회사업가는 인종간 친교정책에 따라 일본인들이나 다른 소수민족들의 행사에 규칙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유독 일본인 행사만은 한인 여성들의 압력으로 참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인들은 일본인들을 고의적으로 피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일본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내보였다. 한인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1936년 여러 기독교 종파가 모인 회의에서 어느 한인 목사가 일어나 일본인들을 공격하자 일본인 목사들이 회의장에서 철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패터슨 2003, 192-194).

한인들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고국의 독립에서 찾았다. 망명자공동체이자 이민자공동체로서 한인사회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민족주의를 실천했다(Yoo 2006, 2-5). 그들에게 기독교를 통해 표현된 종교적 민족주의는 불교에 기초한 일본공동체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기독교는 하와이 한인들에게는 민족종교였다.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의 종교가 아니라, 일제의 지배하에 있는 한국과 한국민족을 구원하는 한인의 민족적 종교였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불교는 하와이에서 일본인들의 종교로 받아들여졌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당시 이미 종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미 하와이에 거주하던 수만 명의 중국인과 일본인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뒤부터, 미국으로부터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가령 1930년에 행해진 미국 인구조사는 1910년과 1920년대와는 달리 미국의 '한인'을 하나의 독립된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Dolan and Christensen 2011, 82).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인과 일본인이 동일시됨으로써 사라나는 젊은 한인 이민세대가 직업선택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193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은 일본의 영토 확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일본인과 동일시된 한인의 충성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한인1.5세는 미국시민권을 확보하기 힘들어졌고, 그로 인해 이룰테면 미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없었다(Choi 2004, 145). 이러한 현실은 한인의 대일본 감정을 더욱 자극했고, 일본인과의 혼동을 극도로 싫어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인과 한인의 대립의 연장선에서 볼 때, 한인을 대상으로 한 불교 포교 활동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1931년 8월 하와이에 당도한 도진호는 5개월이 지난 시점인 1932년 1월 한인 800여명에 둘러싸여 자신이 일본 스파이가 아님을 주장해야만 했던 일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V. 개혁적 불교 승려에서 민족주의자로: 도진호 개종의 의미

도진호는 한국 불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서방으로 이주한 최초의 승려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31년 8월 불교를 전파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하와이로 이주했다. 그가 이주지로 하와이를 선택한 것은 1930년 7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불교대회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여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물론 도진호 이전에 서방으로 나간 한국 승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백승욱과 김법린은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부를 한 뒤 귀국하여 한국 불교 발전에 이바지했다(성원 2016). 백승욱과 김법린이 유학생 자격으로 유럽에 머물렀다면, 도진호는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나갔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승려는 모두 1920년대 민족주의적 의식을 갖고 한국 불교청년운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래에는 다소 길지만 1978년 7월 5일 하와이 대학 최영호 교수가 도진호와 행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그가 하와이에 도착한 것은 1931년이였다. 불교 포교라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 공동체의 정치적 상황은 일대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는 (...) 여러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인 제안을 받고 태평양주보의 편집인 직을 수락했다. 그는 내용과 편집 정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다는 조건 하에서였다. 반대파 기관의 신랄한 공격에 실망한 끝에, 그는 주보의 사실과 뉴스의 논조를 약화시키고자 했다. 구독료와 광고료만으로 주보의 출판비용을 감당하기는 힘들었다. 그리하여 동지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가 이 신문을 위해 일을 했지만 그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가 불교 포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는 소득을 받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시내에서 집을 세놓고 있던 김상호와 같은 몇몇 지인들의 호의적인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32년 1월 그는 김진호와 현순에 의해 한인을 정탐할 목적으로 일본 총독부가 보낸 스파이 혐의로 고발되었다. 그리하여 도씨의 신원을 논의할 목적으로 대략 800명의 사람들이 중국집에 모였다. 이러한 고발 사실을 접한 미국 이민귀화국이 그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그는 거기서 이민귀화국이 만족할 때까지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였다(Samu Sunim 2001, 228).

도진호는 크게 보아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그는 도미 전부터 열렬한 반일 민족주의자로서 개혁적 승려였다. 1931년 8월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그는 민족주의자로서 이승만 계열의 동지회에 가입하였고 동지회와 연계된 '태평양주보'지에서 편집을 담당하였다. 그가 한국어와 한국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일한 민족학교도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던 학교였다. 그의 민족주의자로서의 활동은 모두 하와이 기독교 또는 기독교 세력과 연관되어 있었다. 물론 그는 ‘고려선사’라는 절을 창건하여 자신의 하와이 입국 목적인 불교 포교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진다.⁵⁾ 그러나 성원 스님(성원 2016)의 조사에 따르면, 그의 그러한 포교를 증언해줄 기록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언제 그가 그 절을 세웠는지, 신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주불교의 시발점을 둘러싼 불교계의 논의와 상관없이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와이에서 불교포교사로서의 도진호의 활동은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한인 이민사회는 불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위 인터뷰에서 드러나듯이 그가 한국 역사를 설명하는 중에 불교에 대해 언급했을 때, 주위의 한인들이 그가 불교를 포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정도였다. 물론 위 인터뷰는 그러한 일이 있는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진행된 만큼, 그 당시 도진호가 어떤 식의 강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도진호는 불교 포교사로 도미했지만, 포교사로서 독자적인 생계조차 꾸릴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가 호의적인 한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입국 당시 그의 신분이 승려였고 그가 불교 포교를 위해 하와이로 왔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교가 곧바로 일본의 민족종교로 인식되는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의 분위기에서 불교를 포교하겠다는 목적으로 입국한 도진호는 일본 스파이라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한 한인사회의 분위기에서 그의 개인적 삶은 상당히 고립되었을 것이고 생계 역시 막막했을 것이다. 그가 수행한 기독교 관련 민족학교와 민족운동 조직에서의 활동은 무보수였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 선교사인 현순의 소개로 이화여고를 졸업한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기독교로의 그의 개종이 언제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1943년 동지회 명부가 그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그에 따르면, 그는 당시 동지회 이사였고, 영문과 한자명은 Dough C.H., 都鎮鎬였다. 그는 1898년 12월 12일생으로 출생지는 전남이었다. 당시 나이는 37세였다. 직업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생계를 위한 이렇다 할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⁶⁾

도진호는 호놀룰루에서 생활했다. 1930년대 후반에서부터 194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와이 동지회의 열성적인 회원으로서 해외한인독립 운동에 간여했다. 그는 1931년

5) 도진호는 금강저라는 불교잡지의 편집인과의 서신을 통해 도미한 직후인 1932년 고려선사 창건 사실을 알렸다. “도진호 사가 포왜하와이 - 필재에서 포교사업의 첫숨씨로 高麗禪社를 창설하였다고(금강저 20, 64).”

6) 이덕희의 저서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교학원 대한인동지회”의 부록에 “하와이 대한인동지회 회원명단 (1930-38?)”이 실려 있다(이덕희 2008, 467).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태평양주보의 편집 직책을 맡았다. 태평양주보는 이승만이 이끌던 동지회의 기관지였다. 1913년 9월부터 월간으로 발행되어 오던 태평양잡지가 1930년 12월 13일자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⁷⁾ 그는 하와이로 이민 오기 전 1920년대 이미 불교 승려 신분으로 민족운동에 깊이 간여한 바 있다. 그는 도미 전 이미 승려이자 민족운동가, 다시 말해 불교개혁가이자 민족운동가였던 것이다. 민족주의자로서 도진호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그가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한인 이민사회의 반불교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한인사회의 반불교적 정서가 그로 하여금 개혁적 불교 승려로서의 정체성보다 미국으로 망명한 민족운동가로서의 정체성에 더욱 기울도록 한 것이 아닐까? 도진호가 실제로 고려선사를 창건하여 포교 활동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다. 도진호는 이후 자신의 정체성과 활동의 중점을 승려로서 불교 포교에 두기보다는 미국으로 망명한 민족주의자로서의 활동에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애당초 도진호는 왜 도미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일까? 그가 도미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창립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있다. 그는 백성욱과 김법린과 더불어 조선불교청년회의 적극적인 활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조선불교청년회는 종단과 일제 통치기관에 맞서 조선불교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조선불교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한 단체로 평가된다. 이 조직은 1931년 3월 조선불교청년총동맹으로 개편되어 조선불교의 혁신운동을 주도했다(신치호 2010, 239, 244). 한국 불교사를 연구하는 김광식은 불교의 자주적인 발전과 민족운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비록 미약하지만 “일제의 사찰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 혁신활동을 강력히 전개”했다는 점에서 이 단체의 의의를 찾았다. 실제로 일제는 조선의 여러 종교들 중에서 포섭이 가능한 종교로 불교를 점찍고, 기독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탄압을 가했지만 불교에 대해서 다소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 조선불교청년회는 바로 이런 한국의 기성 불교와 일본 제국주의와의 연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불교 내 개혁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광식 1996, 192-193, 204-207).

일본 경찰이 이러한 조선불교청년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특히 1930년 7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대회에 참석한 도진호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찰하고 있었다. 1931년 3월 22일 있는 불교청년회 주최의 조선불교청년대회에 대한 일제 경찰보고는 도진호가 이 대회에 참석했음을 적시하면서, 이 대회가 “불은

7) 도진호는 1943년 12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외교노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이승만과 결별을 선언하고, 동지회를 탈퇴했다. 이후 그는 하와이 국민회에 가입했다(홍선표 2009, 454-455).

과격한 언동”이 난무하는 대회가 되었다며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기록은 도진호는 일제 경찰의 감시망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당시 친일적인 논조를 강화해 가고 있던 이른바 민족언론들 역시 불교청년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3월 24일자 ‘횡설수설’이란 칼럼난을 통해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창립을 신랄하게 비꼬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에 도진호의 발의로 불교청년회는 동아일보에 항의단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항의 끝에 동아일보는 결국 이 기사의 전문을 취소하고 사죄하였다(신치호 2010, 247-248).

이 사건을 겪은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1931년 8월 도진호는 결국 하와이로 이주한다. 그의 하와이 이주 결정에는 바로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가 조선불교청년동맹의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점점 더 세를 강화해 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힘 앞에 민족운동 세력들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활동 근거지를 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미국으로 옮기려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일제 강점기 개혁적인 젊은 승려들이 외국으로 ‘망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도진호는 하와이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한국에서는 이미 어려워진 개혁적이고 민족주의적 불교의 가능성을 그곳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천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는 결국 자신이 편집인으로 활동하던 ‘불교’지에 ‘새 무대로’라는 시를 한편 남기고 하와이로의 출국의 변을 대신하였다(도진호 1931, 불교 79, 139).

그러나 민족주의적 불교를 포교하겠다고 떠난 그의 망명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불교 승려로서의 그의 신분 그리고 불교 포교라는 그의 입국 목적 자체는 애당초 그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하와이 한인사회는 한인들 틈에 끼어 있는 그를 매우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가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가 1930년 7월 일본 불교가 주최한 불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와이에 입국한 적이 있다는 점 역시 그를 일본과 연관이 있는 인물로 의심하는데 좋은 토양을 제공했을 것이다. 또한 종교적 차원에서 도진호의 잠재적 동지로 분류될 수 있는 하와이 섬에 있는 불교신자는 거의가 일본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제국주의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묵인했다. 그것은 그의 ‘망명’의 동기로 작동한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도진호가 걸어간 길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하와이 한인사회의 기독교와 협력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간 길의 끝에는 기독교로의 개종이 있었다.

Ⅶ. 나가며

하와이에서 애당초 불교와 기독교는 동양과 서양의 종교로서 대척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은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했다. 초기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관찰된 ‘불교의 부재’는 다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설명된다. 우선 기독교는 고국이 식민지 상황에 빠졌을 때, 한인들에게 ‘한국인’임을 느끼게 한 민족주의적 종교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20세기 전후부터 한국이 외세에 의해 침략당할 때, 기독교는 한국 내에서는 물론 이민지 하와이에서도 반일 독립운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었다. 모국의 기독교가 일본제국주의와 타협적인 자세를 보일 때에도 낯선 이국땅에서 망명자로서의 한인은 보다 적극적인 반일 활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인적 지원을 통해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데 기여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마저 부정당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하와이에서 불교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일본인⁸⁾의 민족종교로 인식되고 있었던 만큼, 기독교를 민족종교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인과 차별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한인의 강력한 열망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기독교는 새로운 생활지인 미국에서 서구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종교로 이해되었다. 한인의 기독교 수용은 새로운 이민지에서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수용하고 미국인들의 우호적인 관심을 끄는데 일조했다. 기독교는 현대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게다가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은 일본의 이민자들과는 달리 대체로 농촌에서 뿌리가 뽑힌, 그리하여 도시에서 삶은 영위하던 20-30대가 주축이 된 일종의 피난민이었다. 이들의 의식은 농민과는 달리 매우 진취적이며 모험심이 강했다. 나아가 그들에게는 일본인과 달리 되돌아갈 고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정착민으로서 의식이 강하게 작동했다. 기독교가 지배적인 미국은 앞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대대가 살아가야 할 생활 근거지였던 것이다. 그들은 불교와 유교라는 과거와 단절함으로써, 합리성과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확보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삶의 근거지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한인은 하와이로 이주한 그 어느 소수 민족 집단보다 영어를 잘하고자 노력했고, 미국 문화에 동화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그러한 것이 한인들이 하여금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귀화를 많이 한 민족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기독교화’로 입혀진 ‘미국화’는 하와이 전체 인구에서 아주 작은

8) 1930년 통계에 따르면, 한인은 6461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본인은 139631명으로 집계되었다. 한인은 전체 하와이 인구의 1.8%, 일본인은 37.9%를 차지했다. Lind, Andrew W. 1980. *Hawaii's People*.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34 표3참조.

집단에 불과했던 그리하여 민족경제를 일구어내기 힘들었던 한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데 기여하는 일종의 방편으로 이해되었다. 미국은 뿌리 뽑힌 한인들에게 ‘희망’의 나라였고 기독교는 그런 희망을 실현시켜줄 일종의 메시지였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회에서 ‘불교의 부재’ 현상은 그들이 하와이 땅에서 반일 민족주의자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고 아울러 미국 땅에 정주하려는 정착민으로서의 의식이 낳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한 도진호는 불교 포교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했음에도 불교포교사로서의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말았다. 본 연구는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에 팽배해 있던 기독교 중심의 종교적 민족주의에서 그의 개종이 진행된 근본적 배경을 찾았다. 불교는 하와이 한인의 눈에는 일본인의 민족종교로서 비취졌고, 그런 만큼 유재근의 표현을 빌리면, 불교는 한인들에게는 ‘불일치와 비동화’(Yu, Chae-Kun 1977, 173)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 김광식. 1996. 한국 근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 김원용. 2004. 재미한인오십년사. 해안.
- 김종진. 2016. 1930년대 불교지 문학장의 구성과 문학적 실현 양상 - 편집인과 직원 기자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48, 31~63,
- 박규환. 2013. 일제강점기 개신교 설교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과 민족·국가의식. 한국기독교와 역사 9. 251-279.
- 백낙준. 1995.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출판부.
- 성원. 2016. 미주 한국불교의 역사와 과제. 불교평론 65.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2>.pdf (검색일: 2017. 10. 30.).
- 신치호. 2010. 일제하 조선불교 청년운동의양상과 조직 변경. 영남학 17. 237-263
- 유동식. 2006. 하와이의 한인과 교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백년사. 한들출판사.
- 윤기엽. 2009. 일본 근대불교의 북미지역 포교. 한국사상과 문화 48, 411-437.
- 이덕희. 2003. 하와이 한글 언론, 1904-197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미주 한인의 민족운동. 서울: 해안. 193-226.
- 이덕희. 2008.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학원 대한인동지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만열. 1988. 한국 기독교와 미국의 영향. 한국과 미국3 : 사회문화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425-476.
- 이민용. 2002. 미국 속의 불교와 불교의 미국화. 종교문화비평 2, 105-140.
- 이선주. 2013. 하와이 이민 초창기 한인들의 감정 구조. 한국학연구 31, 33-79.
- 이영호. 2004. 하와이 이민과 인천. 근대의 이민과 인천. 인천광역시 제1회 학술대회 (2004.9.3.). http://www.incheon.go.kr/ebook/pdf/2004_12_1.pdf
- 이진구. 2007. 해방 이후 남한 개신교의 미국화 - 복음주의 우파의 신앙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78. 4-11.
- 조은정. 2011.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車培根. 1980. 布哇韓僑新聞史略攷. 한국언론학보 13. 55-82.
- 카시와하라 유센. 2008. 일본불교사 근대. 동국대학교출판부.

- 패터슨. 웨인. 2002. 아메리카로 가는 길: 한인 하와이 이민사, 1896-1910. 들녘.
- 패터슨. 웨인. 2003.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 (1903-1973). 들녘.
- 홍선표. 2009. 해방이전 대한인동지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417-463.
- Choi, Anne Soon. 2004. Hawaii Has Been My America: Generation, Gender, and Korean Immigrant Experience in Hawai'i Before World War II. American Studies 45(3). 139-155.
- Ama, Michihiro. 2007. Immigrants to the Pure Land: The Acculturation of Shin Buddhism in Hawaii and North America, 1898-1941.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Choy, Bong-youn. 1979. Koreans in America. Chicago: Nelson Hall.
- Cox, Oliver Cromwell. 2011. Race Prejudice, Class Conflict, and Nationalism. Race/Ethnicity: Multidisciplinary Global Contexts 4(2), 169-182.
- Dolan, T and Christensen, K. 2011. Korean Ethnic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1900-1945. Journal of Global Initiatives: Policy, Pedagogy, Perspective 5(2), 73-86.
- Kim, Bernice B. H. 1937. The Koreans in Hawaii. University of Hawaii.
- Lind, Andrew W. 1980. Hawaii's People.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 Samu Sunim (Kim, Sam-Woo). 2001. Turning the Wheel of Dharma in the West: Korean Son Buddhism. Warner, R. Stephen, Kim, Kwang-chung, Kwon, Ho-youn, ed. North America Korean Americans and Their Religions : Pilgrims and Missionaries from a Different Shor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Van Zile, Judy. 2002. The Public Face of Korean Dance in Hawai'i: A Story of Three Women. Embracing the Other: The Interaction of Korean and Foreign Cultures: Proceedings of the 1st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I. Songnam, Republic of Korea: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ttp://congress.aks.ac.kr/korean/files/2_1358733988.pdf (검색일: 2017.10.30.).
- Yoo, David K. 2006. Nurturing Religious Nationalism: Korean Americans in Hawaii.
- Yu, K. Kale. 2011. Hawaiian Connectionalism: Methodist Missionaries, Hawaii Mission, and Korean Ethnic Churches. Methodist History 50(1), 3-15.

- Yu, Chae-Kun, 1977. The Correlates of Cultural Assimil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S. In Hyung-chan Kim, The Korean diaspora: historical and sociological studies of Korean immigration and assimilation in North America, ABC-Clio.

- 금강저 19. 1931.
- 금강저 20. 1932.
- 불교 79. 1931.

● 투고일: 2019.01.24. ● 심사일: 2019.01.30. ● 게재확정일: 2019.02.14.
--

Early Hawaiian Korean Immigrant Society and “Absence of Buddhism”

Choi Daehe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researches the reason why Buddhism did not prosper in the early Hawaiian Korean immigrant society. The “absence of Buddhism” observed in the early Hawaiian Korean society can be accounted for the following two elements: First of all, Christianity was a nationalist religion for Korean immigrants that made them recognize as “Koreans.” Secondly, converting of Koreans to Christianity contributed to adopting the life style and culture of Americans. The majority of Korean migrants to Hawaii were urban young refugees who had strong consciousness as settlers. They read the “Americanizing” as “Christianizing.”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absence of Buddhism” in Hawaiian Korean immigrant society is a result of the identity of “Koreans” as the anti-Japanese nationalist and the consciousness of settlers in USA. The study gives special attention to Do, Jinho, who had arrived in Hawaii with clear goal of Buddhist missionary work, but failed to do anything. The fundamental background for his converting to Christianity is to be found in the religious nationalism led by Christianity prevailing the Hawaiian Korean immigrant society.

<Key words> Early Hawaiian Korean immigrant society, Buddhism, Nationalist religion, Americanizing, Christianizing